

崔世珍의 韻會音 體系

吳 鍾 甲

<內 容>

- | | |
|----------------|-------------------|
| 1. 序 | 3. 2. 韻母의 體系 |
| 2. 古今韻會學要音의 體系 | 3. 2. 1. 韻部母音의 體系 |
| 2. 1. 聲母의 體系 | 3. 2. 2. 韻尾音의 體系 |
| 2. 2. 韻母의 體系 | 3. 3. 反切과 翻譯音 |
| 3. 崔世珍의 翻譯音 體系 | 4. 結 |
| 3. 1. 聲母의 體系 | |

1. 序

1. 1. 四聲通解의 凡例와 그 內容을 살펴 보면, 洪武正韻, 洪武正韻譯訓, 四聲通攷, 蒙古韻略, 韻會(古今韻會學要), 集韻, 廣韻, 中原音韻, 中原雅音韻學集成 등등의 많은 韻書의 音과 釋을 引用하고 있으며 또 崔世珍 自身の 翻譯音도 到處에 收錄하고 있는데, 이들을 잘 整理한다면 여러 韻書들의 音體系를 究明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四聲通解에 그 音의 全貌가 收錄되어 있는 四聲通解 및 四聲通攷와 蒙古韻略의 音體系에 對해서는 이미 姜信沆과 俞昌均님에 依하여 훌륭한 業績이 發表되고 있으나¹⁾, 그 翻譯音이 너무 斷片的이어서 一目瞭然하게 그 體系를 알기가 어려운 다른 引用 韻書들의 翻譯音에 對해서는 別다른 研究가 없는 듯하다.

그리하여 筆者는 四聲通解의 卷頭에 실린 「韻會三十五字母之圖」와 到處에 散在한 韻會音을 整理하여 崔世珍의 古今韻會學要 翻譯音의 體系를 究明하고, 資料整理에서 나타나지 않는 韻會音은 다음 1. 2에 提示되는 古今韻會學要音과 蒙古韻略音間의 對應關係表에 依據하여 翻譯音의 體系를 再構하고자 한다.

1. 2. 四聲通解에는 四聲通攷의 音과 蒙古韻略音이 全面的으로 收錄되어

1) 姜信沆: 四聲通解研究.

俞昌均: 四聲通攷와 蒙古韻略의 再構.

있어, 단약에 四聲通攷의 音系와 古今韻會學要音系間的 對應關係나 蒙古韻略音系와 古今韻會學要音系間的 對應關係의 둘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韻會學要的 翻譯音 體系는 쉽게 밝혀질 것이나, 四聲通攷의 韻會學要音系間的 對應關係는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韻會學要音系와 蒙古韻略音系間的 對應關係도 四聲通解 안에서는 비록 蒙古韻略音은 全面的으로 收錄되어 있으나 韻會學要的 翻譯音은 너무 斷片的이어서 그 對應關係가 樹立되기 어려우므로, 次善策으로 熊忠의 古今韻會學要에 依하여 蒙古韻略音系와 古今韻會學要音系間的 對應關係를 樹立하여 이를 利用하고자 한다 熊忠의 古今韻會學要 凡例의 音例에 依하면,

「吳音角次濁音 卽雅音羽次濁音 故吳音 疑母字有入蒙古韻喻母者 今此類並注云蒙古韻者入喻母」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古今韻會學要音系와 蒙古韻略音系를 比較한 것으로, 實際로 古今韻會學要的 內容에서도 韻會學要音系와 蒙古韻略의 音系가 全面的으로 比較되어 있어 이들 兩音系의 對應關係는 쉽게 밝혀진다.

鄭再發님도 古今韻會學要到 舉證된 音系에 對하여,²⁾

「一種是引蒙古韻略의 音 來跟韻會學要的 音兩存 一種是據蒙古韻略의 音 來改動集韻의 反切」

이라고 하여, 하나는 蒙古韻略音系와 韻會學要音系가 兩存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韻會學要的 「宜」字를 보면,

「宜 疑竊切 角次濁音 舊音魚霸切〔案〕蒙古韻略宜字屬疑母舊音屬魚母分依蒙古韻更定仍存舊音後皆倣此」

라는 記錄이 있듯이, 舊音 卽 集韻의 反切을 蒙古韻略에 依據하여 改定한 경우의 둘을 들고 있다. 그런데 本稿에서 必要한 것은 「一種是引蒙古韻略의 音 來跟韻會學要的 音兩存」으로서, 이 경우에 該當하는 例를 韻會學要에서 모두 찾아내어 그 差異點을 밝힌다면, 나머지의 경우는 韻會學要音系와 蒙古韻略音系가 同一한 것이 된다.

그럼 다음에서 韻會學要到 나타난 表音의 樣相을 살펴보기로 하자,³⁾

2) 鄭再發: 蒙古字韻跟八思巴字有關的韻書 p. 28.

3) 俞昌均: 蒙古韻略의 再構와 그 實際 p. 2참조(嶺大論文集 第3輯)

(1) 韻會舉要音과 蒙古韻略音を 並存시킨 경우

「書 謨中切 音與蒙同(筆者註：宮次濁音) 蒙古韻音入微母」
 <1> <2> <3> <4>

<1>은 字類의 代表字, <2>는 集韻의 反切表示, <3>은 <2>의 反切表示만으로는 그 當時의 中原音を 正確히 나타낼 수 없어 「宮次濁音」이라 하여 <2>의 聲母의 分屬을 보인 것이며, <4>는 「書」의 蒙古韻略音を 表示한 것으로, 이 경우에 該當하는 資料만을 모두 찾아내어 兩音系를 對應시키면 그 差異點의 全貌가 드러나게 된다.

(2) 集韻音を 蒙古韻略音으로 改定한 경우

「硬 喻孟切 羽次濁音 舊韻魚孟切」
 <1> <2> <3> <4>

<1>은 字類의 代表字, <2>는 集韻의 反切表示를 따르지 않고 蒙古韻略音系에 따라 音を 改定한 것으로 古今韻會舉要의 字音を 나타내는 同時에 蒙古韻略의 字音도 表示하고 있다. 즉 韻會舉要音과 蒙韻音이 同一한 例이다. <3>은 <2>의 聲母의 音聲의 特徵을 表示하며, <4>는 集韻音を 보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例示한 것과 같은 表音의 경우를 解釋할 때 注意해야 할 點은 「舊韻○○切」을 古今韻會舉要音으로 解釋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로서, 이 사실을 더욱 確證해주는 것은, 匹聲通解에 依하면, 「硬」字의 聲母反譯音を 廣韻⁴⁾은 「ㅇ」으로 韻會와 蒙韻은 다 같이 「ㅇ」으로 表音했다는 點이다.⁵⁾

(3) 韻會舉要音과 集韻音, 蒙古韻略音의 셋이 並存하는 경우

「岳 疑咸切 角次濁音 舊韻魚咸切 蒙古韻音入喻比」
 <1> <2> <3> <4> <5>

<1>은 字類의 代表字, <2>는 韻會舉要音, <3>은 聲母의 分屬, <4>는 集韻音, <5>는 蒙古韻略音を 表示한 것으로, 앞의 (1)의 경우와 (2)의 경우가 結合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 韻會舉要音과 蒙古韻略音이 一致하는 경우

「公 沽紅切 角清音 []」
 <1> <2> <3> <4>

<1>은 字類의 代表字, <2>는 集韻의 反切, <3>은 <2>의 反切上字를 「角清音」으로 解釋할 것, <4>는 空欄으로서, [] 속은 「蒙音同」이라고 表示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以上에서 古今韻會舉要의 表音의 實相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을 綜合하여

4) 匹聲通解에 集韻音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廣韻音を 보임.

5) 匹聲通解에서 「硬」字를 찾아보면, 「硬平聲 硬韻會 蒙韻音 堅也」라고 되어 있다.

	古今韻會舉要	蒙古韻略	異韻
(1)	<2>+<3>	<4>	<2>
(2)	<2>+<3>	<2>+<3>	<4>
(3)	<2>+<3>	<5>	<4>
(4)	<2>+<3>	<2>+<3>	<2>

<表 1>

各音系の 對應關係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1. 여기서는 古今韻會舉要에 나타나는 韻會舉要音과 蒙古韻略音과를 並存시킨 全例를 列擧해 보기로 한다.⁶⁾

① 字母의 差異가 指摘된 것([]는 古今韻會舉要音, / /은 蒙古韻略音)

[疑]—/喻/

- 牙 牛加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鴟 倪應切 音興挖同 蒙古韻音入喻母
- 駘 語駭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額 鄂格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妍 倪堅切 音興言同 蒙古韻音入喻母
- 顏 牛姦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匡 宜佳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鴈 魚潤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贅 牛交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嶽 逆角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敵 五巧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果韻喻母
- 雅 語下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訝 五駕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 喾 疑咸切 角次濁音 蒙古韻音入喻母

[魚]—/喻/樂(※ 字類代表字만 보임)

[魚]—/影/偶 [娘]—/泥/撓搨

[喻]—/疑/焉 [泥]—/娘/紐

[喻]—/魚/洎位 [明]—/微/簪夢

② 字母韻의 差異가 指摘된 것

[公]—/弓/偶 [絳]—/況/況

[]—/拱/冗 [啓]—/癸/揆

[]—/供/匈 [塊]—/銳/叡

[]—/教/撓 [窰]—/穀/鷓

6) 鄭再發: 前掲書 p. 28에서 이미 詳細한 指摘을 하고 있다.

- | | |
|-----------|------------|
| 〔 〕—/敬/筵 | 〔堅〕—/涓/踰 |
| 〔涓〕—/韃/涎 | 〔莧〕—/恒/撈擦覽 |
| 〔各〕—/郭/妃遑 | 〔葛〕—/括/末 |
| 〔絞〕—/果/敵 | 〔結〕—/訐/牒 |
| 〔教〕—/誥/拗 | 〔訐〕—/結/截 |
| 〔拱〕—/到/耿 | |

以上에서指摘된 字母 및 字母韻 以外の 字類들은 韻會學要音과 蒙古韻略 音이 同一한 것이다.

1·2·2. 四聲通解에서도 古今韻會學要音과 蒙古韻略音이 對比된 것이 많이 나타난데, 서로 다르다고 한 全例를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① 字母의 差異가 指摘된 것

- 〔群 ㄱ〕—/曉 ㅎ / 猶
- 〔疑 ㅇ〕—/匣 ㄹ / 韻
- 〔疑 ㅇ〕—/喻 ㅇ / 妍 研 言 擘 燁 燁 燁
- 〔魚 ㅇ〕—/喻 ㅇ / 員
- 〔透 ㄷ〕—/定 ㄸ / 挺
- 〔滂 ㅍ〕—/幫 ㅍ / 疇 埔 幅 福 副 副 副 副
- 〔滂 ㅍ〕—/並 ㅍ / 薦
- 〔精 ㅈ〕—/清 ㅈ / 批
- 〔清 ㅈ〕—/精 ㅈ / 欸
- 〔清 ㅈ〕—/邪 ㅈ / 習
- 〔從 ㅉ〕—/清 ㅈ / 嵯
- 〔知 ㅊ〕—/澄 ㅊ / 宇
- 〔徹 ㅌ〕—/知 ㅌ / 取
- 〔澄 ㅌ〕—/徹 ㅌ / 劉 鐵 漸
- 〔澄 ㅌ〕—/審 ㅌ / 涉
- 〔澄 ㅌ〕—/禪 ㅌ / 證
- 〔禪 ㅌ〕—/審 ㅌ / 孰 熟 塾 錫 蜀 瑤 璫 屬 鞦 鞦 屬 蠟 燭
- 〔曉 ㅎ〕—/匣 ㄹ / 禾 鉗 蚯 湫 攸 脅 脅 脅 協 燭
- 〔匣 ㄹ〕—/溪 ㅋ / 贅
- 〔么 ㅁ〕—/喻 ㅇ / 厭 腌 壓 麗 摩 滉
- 〔日 ㄷ〕—/孃 ㄴ / 誦

② 字母韻의 差異가 指摘된 것

- 〔嬌ㄐ〕—／惟ㄒ／遺
 〔孤ㄍ〕—／居ㄐ／毳
 〔蓋ㄍ〕—／解ㄍ／隘噫呢詎
 〔該ㄍ〕—／佳ㄍ／涯匪崖涯捱
 〔管ㄍ〕—／管ㄍ／儂婉
 〔肝ㄍ〕—／姦ㄍ／肝
 〔慣ㄍ〕—／建ㄍ／饌撰譚
 〔歌ㄍ〕—／莪ㄍ／磋蹉
 〔過ㄍ〕—／餓ㄍ／剗控菱和摺
 〔果ㄍ〕—／我ㄍ／僕麼陞
 〔雄ㄍ〕—／烏ㄍ／烏桐阿網傾頃榮榮螢
 〔國ㄍ〕—／噉ㄍ／域減戡域域緘闕
 〔橋ㄍ〕—／國ㄍ／殖
 〔頃ㄍ〕—／穎ㄍ／炯

以上에서 살펴 본 바에 依하면, 古今韻會舉要에서 指摘된 差異點과 四聲通解에서 指摘된 그것과의 사이에는 많은 差異가 있는데, 이는 古今韻會舉要的 編纂者와 四聲通解 編纂者 間的 蒙古音에 關한 音韻觀念의 差異에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四聲通解의 凡例에 依하면,

「諸字於一母之下 洪武韻與蒙韻同音者入載於先 而不著蒙音 其異者則隨載於下 而各著所異之蒙音 故今撰字序不依通攻之次也 至於韻會 集韻 中原雅音 中原音韻 韻學集成及古韻之音 則取其似或可從而著之 非必使之勉從也」

라고 한 事實을 볼 때 蒙古韻略音은 全面的으로 收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韻會音은 全面的으로 收錄되었는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 만약 全面的인 差異點이 指摘되었다면 위의 資料에서 指摘된 以外的 字類는 ‘蒙韻 翻譯音과 韻會舉要 翻譯音이 完全히 一致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指摘이 全面的인지는 疑心스러우므로 本稿에서는 1·2·1의 差異點과 함께 韻會舉要 翻譯音을 再構하는 補助資料로만 利用하고자 한다.

2. 古今韻會舉要音의 體系

2·1. 聲母의 體系

古今韻會舉要的 卷頭에는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라 하여 平聲 東韻에서 비롯하여 韻目別로 字母, 字母韻, 字母韻을 차례로 번려 놓았는데 一. 東獨用の 경우만을 보이던 다음과 같다.

一. 東獨用

「公」字母韻：見(公) 溪(空) 端(東) 透(通) 定(同) 泥(濃) 並(蓬) 明(蒙)
 非(風) 敷(豐) 奉(馮) 微(霽) 精(嬰) 清(忽) 從(叢) 知(中)
 知(終) 徹(充) 徹(忡) 澄(崇) 影(翁) 曉(烘) 合(洪) 來(籠)
 「弓」字母韻：見(弓) 溪(穹) 群(窮) 心(嵩) 澄(蟲) 喻(融) 來(隆) 日(戎)
 「雉」字母韻：匣(雉) (以下省略)

※ () 안의 字는 字母韻으로서 字類의 代表字.

위의 例와 같이 提示된 平聲 一. 東獨用에서 入聲 十七. 與洽狎乏通까지의 字母 中에서 重複된 것을 빼고 整理하면 三十六字母가 되는데 이것이 古今韻會舉要的의 聲母體系가 된다.

表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

清濁	五音	角	徵	商	次商	商	次商	羽	半徵商	半商徵
清	音	見	端	幫	非	精	知	影		
次	清音	溪	透	滂	敷	清	徹	曉		
濁	音	群	定	並	奉	徒	澄	匣		
次	濁音	疑	泥	明	微		娘	喻	來	日
次	清 次音					心	審	么		
次	濁 次音	魚				邪	禪	合		

<表 2>

2.2. 韻母의 體系

古今韻會舉要에는 韻母를 表示하는 것으로 韻目, 字母韻 그리고 字類의 代表字 아래에 있는 反切下字의 셋을 들 수 있는데, 韻目은 詩韻의 體系이며, 反切下字는 集韻音의 體系이므로 古今韻會舉要的의 韻母體系는 字母韻이 表示한다.⁷⁾

그럼 다음에서는 聲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古今韻會舉要 卷頭의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에 나타난 字母韻을 表로 보이던 아래와 같다.

7) 王 力：漢語音韻學 pp.482~483.

韻目	字母韻				韻目	字母韻				韻目	字母韻			
	平	上	去	入		平	上	去	入		平	上	去	入
5 魚	樵	唯	悲	聿	9 先	間	簡	諫	13 侵	箝	檢	劍	葛括結許刮受恒厥缺	
6 佳	孤	古	願	穀		韃	寃	建		兼	歎	歎		歎
7 眞	居	舉	據	甸	10 蕭	賢	寃	現	14 歌	歎	險	險	○	
	該	改	蓋	額		堅	峴	見		見	○	○		○
8 寒	乖	掛	卦	號	11 尤	涓	卷	唱	15 麻	緘	減	減	○	
	佳	懈	怪	懈		參	果	響		響	○	○		○
8 寒	○	○	○	○	12 覃	高	嬌	嬌	各脚爵郭覺覺	管	管	管	葛括結許刮受恒厥缺	
	○	○	○	○		驕	傲	傲		傲	○	○		○
8 寒	巾	謹	斬	斃	11 尤	○	○	○	○	歌	歌	歌	葛括結許刮受恒厥缺	
	昆	袞	輪	先		○	○	○		○	○	○		○
8 寒	鉤	綸	先	良	11 尤	○	○	○	○	戈	嗟	嗟	葛括結許刮受恒厥缺	
	恨	懇	懇	緊		○	○	○		○	○	○		○
8 寒	欲	緊	緊	限	11 尤	○	○	○	○	迦	迦	迦	葛括結許刮受恒厥缺	
	筭	筭	筭	筭		○	○	○		○	○	○		○
8 寒	干	干	干	干	11 尤	○	○	○	○	嘉	嘉	嘉	葛括結許刮受恒厥缺	
	官	官	官	官		○	○	○		○	○	○		○
8 寒	關	關	關	關	11 尤	○	○	○	○	癩	癩	癩	葛括結許刮受恒厥缺	
	○	○	○	○		○	○	○		○	○	○		○

<表 4>

3. 崔世珍의 翻譯音 體系

여기서는 四聲通解에 斷片的으로 나타나 있는 韻會翻譯音を 整理하고, 그 資料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앞에서 提示한 1·2의 方法論에 依據하여 그 音を 再構하고자 한다.

3.1. 聲母의 體系

古今韻會舉要의 聲母에 對한 崔世珍의 翻譯音體系는 四聲通解 卷頭의 「韻會三十六字母之圖」⁸⁾에 一目瞭然하게 提示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四聲通解卷頭에는 「韻會三十五字母之圖」라고 하여 「合」母가 漏落되었다.

韻會 三十六字母之圖

五音		角	徵	宮	次宮	商	次商	羽	半徵商	半商徵	
清	濁	音	見ㄐ	端ㄊ	幫ㄏ	非ㄈ	精ㄐ	知ㄗ	影ㄙ		
次	清	音	溪ㄒ	透ㄊ	滂ㄆ	敷ㄈ	清ㄑ	徹ㄗ	曉ㄙ		
濁	音	群ㄑ	定ㄊ	並ㄆ	奉ㄆ	從ㄆ	澄ㄆ	匣ㄙ			
次	濁	音	疑ㄋ	泥ㄋ	明ㄇ	微ㄇ		孃ㄋ	喻ㄎ	來ㄌ	日ㄷ
次	清	次音					心ㄙ	審ㄙ	公ㄅ		
次	濁	次音	魚ㄋ ⁹⁾				邪ㄙ	禪ㄙ	合ㄙ ¹⁰⁾		

<表 5>

그럼 다음에서는 四聲通解속에 斷片的으로 나타난 韻會音을 整理하여 「韻會舉要三十六字母之圖」를 再確認해 보기로 하자.

1) 見·溪·群·疑·魚母

見母：廟(居宜切，角清音) (기) 羈奇畸畿飢詘姬覩其居箕冀緹基漢基幾幾譏幾磯機.

：斬(居焮切，角清音) (긴) 斤謹.

：迓(居伽切，角清音) (가)

：曠(姑橫切，角清音) (궁) 航宏

：烏(涓炎切，角清音) (궁) 坳坳網網

溪母：頤(音) 劓(카) 傾(쿵) (※紙面關係上 字類代表字와 翻譯音단 브 임. 以下同)

群母：邊(音) 獮(피) 伽(꺼) 噤(침)

疑母：顛(은) 尤(형) 儼(형) 彦(현) 有(형) 隹(ㅇ母) 鴉(형) 宥(형) 仰() 峩(의)

魚母：迂(유) 贖(외) 員(ㅇ母)

以上の資料에서 볼 때, 見·溪·群·疑·魚母는 各各「ㄐ·ㄒ·ㄑ·ㅇ·ㅇ」으로 表音되어 四聲通解 卷頭の「韻會三十六字母之圖」의 表音과 一致한다.

9) 四聲通解卷頭の「韻會三十五字母之圖」에는 「魚」母를 次清次音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는 次濁次音의 誤記로 생각된다.

10) 本圖標에서는 「韻會三十五字母之圖」에서 漏落된 「合」母를 애워넣었다.

2) 端·透·定·泥母

端母：烏(투)

透母：訖(퇴) 琺(팅) 納(탐)

定母：惰(피) 挺(병)

泥母：(資料가 나타나지 않음)

端·透·定·泥母는 各各 「ㄷ·ㅌ·ㄸ·ㄴ」으로 表音되었다.

3) 幫·滂·並·明母

幫母：悲(비) 彼(비) 秘(비) 請(부) 具(배) 沛(배) 筆(뷔)

滂母：疔(피) 披(피) 詰(피) 怖(부) 蘊(원) 塤(위)

並母：幪(부) 馥(부) 圮(위) 否(위) 彼(위) 罷(배) 倍(배) 弼(피) 躡(편) 朋(병)

明母：糜(미) 靡(미) 昧(미) (密(미) 盲(몽))

幫·滂·並·明母는 各各 「ㅂ·ㅍ·ㅃ·ㅁ」으로 反譯되었다.

4) 非·敷·奉·微母

非母：鵠(부)

敷母：(資料無)

奉母：飯(반) 防(방)

微母：目(무)

敷母는 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나, 非·奉·微母는 各各 「ㅍ·ㅍ·ㅁ」으로 反譯되어 <表 5>의 表音과 一致한다.

5) 精·清·從·心·邪母

精母：鑣(주) 宜(주) 稷(짐) 挫(취) 蘊(위) 邊(준) 償(원)

清母：攄(주) 欸(주) 劑(취) 疽(주) 習(취) 磧(취) 蹙(취) 腫(취)

從母：漬(주) 沮(주) 載(취) 慙(잠) 繒(정) 藉(취)

心母：徙(주) 駢(승) 珊(산) 肅(수)

邪母：寺(쓰) 囚(취) 弛(취) 隄(선)

精·清·從·心·邪母는 各各 「ㅈ·ㅊ·ㅉ·ㅅ·ㅆ」으로 反譯되었다.

6) 知·徹·澄·孃·審·禪母

知母：滓(주) 叢(주) 貯(주) 茁(취) 吒(자)

徹母：倝(주) 熾(취) 黻(취) 隳(취)

澄母：贖(주) 冲(주) 士(주) 示(취) 事(주) 柱(주) 杼(주) 實(취) 曆

(준) 稜(잔) 饌(좌) 劓(짜) 涉(저)

孃母：釀(남)

審母：釀(츠) 史(츠) 躡(츠) 毳(수) 絨(수) 蓬(산)

禪母：孰(쑈) 燻(쑈) 卮(쑈) 盾(쑈) 單(쑈) 盪(쑈) 闕(쑈) 讎(쑈) 剡(쑈) 贖(쑈)

知·徹·澄·孃·審·禪母는 各各 「ㄱ·ㄷ·ㅈ·ㄴ·ㅆ·ㅊ」으로 表音되었다.

7) 影·曉·匣·喻·么·合母

影母：志(취) 域(취) 殷(진) 質(휴)

曉母：秉(홍) 欲(허) 鍾(홍)

匣母：卯(병) 輻(향) 縣(향) 轟(향)

喻母：惟(우) 淮(어) 攸(오) 燿(이) 樛(잉) 穎(웅) 掾(龍) 尹(운) 孕(잉)

么母：陰(쇄) 厭(하) 榮(홍) 癭(향)

合母：軒(한)

影·曉·匣·喻·...·合母는 各各 「ㄱ·ㄷ·ㅈ·ㅊ·ㅇ·ㅎ」으로 表音되었다.

8) 來母

來母：錄(루) 籠(롱) 嚳(륜)

來母는 「ㄹ」로 反譯되었다.

9) 日母

日母：肉(슈) 諷(여)

日母는 「ㄷ」으로 反譯되었다.

以上の 資料整理에서 살펴 본 바에 依하면, 各 字類의 反譯音은 四聲通解 卷頭의 「三十六字母之圖」와 完全히 一致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崔世珍의 韻會舉要 錄譯音의 聲母體系는 四聲通解 卷頭의 「三十六字母之圖」에서나 또 資料整理에서나 다 같이 疑母와 魚母는 「ㅇ」으로, 非母와 敷母는 「ㅂ」으로, 泥母와 孃母는 「ㄴ」으로, 影母와 么母는 「ㄱ」으로, 匣母와 合母는 「ㅎ」으로 各各 同一하게 反譯되고 있어, 事實上의 崔世珍의 韻會舉要錄譯音의 聲母體系는 三十一字母體系가 된다.

이것을 表로 보면 다음과 같다.

三十一字母體系圖

五音	角	徵	宮	次宮	商	次商	羽	半徵商	半商徵
清濁									
清音	見 ㄱ	端 ㄷ	幫 ㅁ	非 ㅂ	精 ㅈ	知 ㅊ	影 ㅇ		
次清音	溪 ㅋ	透 ㅌ	滂 ㅍ		清 ㅊ	徹 ㅌ	曉 ㅎ		
濁音	群 ㄴ	定 ㄸ	並 ㅃ	奉 ㅍ	從 ㅆ	澄 ㅈ	匣 ㅎ		
次濁音	疑 ㅇ	泥 ㄴ	明 ㅁ	微 ㅁ			喻 ㅇ	來 ㄹ	日 ㄷ
次清次音					心 ㅈ	審 ㅈ			
次濁次音					邪 ㅈ	禪 ㅈ			

<表 6>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古今韻會舉要의 字母體系는 <表2>와 같은 三十六字母體系인데, 위의 表에서는 三十一字母體系로 나타나 兩者間에는 差異가 나는데 그 理由는 무엇인가?

이에 對해서 趙菴棠氏는 「等韻源流」에서,¹¹⁾

「我們從他的七音三十六母通攷中看起來 有知·徹·澄·泥無照·穿·牀·孃 故他所訂定的聲類只有三十二之數」

라고 하여 廣韻系의 三十六字母, 即 「見溪群疑 端透定泥 知徹澄孃 幫滂並明 非敷奉微 精清從心邪 照穿牀審禪 影曉匣喻 來日」中에서 「知一照, 徹一穿, 澄一牀, 泥一孃」의 八母를 統合한 三十二字母를 認定하고, 다시

「疑母存於南而亡於北」

이라고 하여 最終的으로 韻會舉要의 聲母를 三十一字母로 設定하고 있으며, 崔世珍 역시 四聲通解 卷頭「韻會三十六字母之圖」下의 注解에서,

「魚卽疑音 孃則泥音 么卽影音 敷卽非音 不宜分二 而韻會分之者 蓋因蒙韻內魚疑二母音雖同而蒙字卽異也 泥孃么影非敷六母亦同 但以泥孃二母 別著論辨決然分之 而不以爲同 則未可知也」

라고 하여, 實際上的 韻會舉要 聲母體系를 위의 <表 6>과 같이 보고 있으니, 趙菴棠氏는 疑母를 認定하지 않고 喻母에 統合하고, 그 代身 敷母를 認

11) 趙菴棠: 等韻源流 pp. 112~113.

定하고, 崔世珍은 앞의 資料整理에서도 본 바와 같이, 즉 “疑母: 雖(으母) 喻母: 攸(으母)” 처럼 表音함으로써 疑母와 喻母를 뚜렷이 區別認定하고 있으며, 數母는 非母와 同一하게 表音하여 하나로 統合시키고 있는 點에서 兩者 사이에는 꼭 같이 三十一字母를 設定하고 있으나 細部的으로는 약간의 差異가 있다. 그러나 둘 다 古今韻會舉要의 그 當時 實際의 聲母體系는 三十六字母體系가 아닌 三十一字母體系로 보고 있다.

3.2. 韻母의 體系

앞의 2.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古今韻會舉要의 韻母體系는 表面上으로는 傳統的 韻部에 依據하여 既韻系 206韻을 統合한 107韻을 設定하고 있으나, 實際上으로는 字母韻 218韻을 設定하여 元朝의 語音系統을 反映하고 있다.¹²⁾

韻會 凡例에서도,

「舊韻所載 考之七音 有一韻之字而分爲數韻者 有數韻之字而併爲一韻者, 今每韻依七音韻各以類聚 注云「已上案七音屬某字母韻」

이라고 하였으나, 卽「舊韻」이라는 것은 傳統的 韻部를 가리키고, 「某字母韻」이라고 한 것은 元朝의 實際語音系統(當時의 中原音)을 가리킨다.

다음에서는 字母韻에 따라 翻譯音資料를 整理하고 資料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1.2의 方法論에 依據하여 翻譯音을 再構하여 韻母의 翻譯音體系를 究明하고자 한다.

3.2.1. 韻部母音의 體系

1) 東韻

公¹³⁾: 汞(홍) 籠(롱) 鋪(웅) (※紙面關係上: 字類代表字와 翻譯音만 보임)

弓: 樅(충) 沖(충) 驛(송) 穎(웅)

字母韻「公·弓」의 韻部母音은 各各「ㄷ·π」로 表音되었다.

2) 庚韻

京: 騰(성) 櫻(잉) 癭(평) 綱(정) 硬(잉) 挺(팅) 甍(빙) 孕(잉)

雄: 扁(궁) 傾(궁) 炯(궁)

字母音「京·雄」의 韻部母音은 各各「ㄱ·π」로 表音되었다.

12) 俞昌均: 東國正韻研究(研究篇) p. 182 以下.

姜亮夫: 中國聲韻學 pp. 197~200.

13) 平聲字母韻으로서 平·上·去·入聲韻全體를 代表한다.

그런데 字母韻「拊・經・行・兄・弘」은 四聲通解에 그 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1・2에서 提示한 方法에 따라 韻部母音을 再構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字母韻의 字類代表字를 古今韻會舉要에서 찾아 적으면 다음과 같다.

- 拊 : 撫 泥耕切 音與蒸韻能同(능)
- 拊 曄橫切 音與崩同 (붕)
- 繡 悲萌切 音與崩同 (붕)
- 烹 披庚切 宮次淸音 (풍)
- 秤 披耕切 音與烹同 (풍)
- 彭 蒲庚切 音與朋同 (뵙)
- 爭 蒼莖切 次商淸音 (중)
- 翮 蒲萌切 音與彭同 (풍)
- 丁 中莖切 音與爭同 (중)
- 琤 初耕切 次商次淸音 (흥)
- 腫 抽庚切 音與琤同 (흥)
- 鎗 楚耕切 音與琤同 (흥)
- 生 帥庚切 次商次淸次音(흥)
- 根 除庚切 次商濁音 (중)
- 曄 鋤耕切 音與根同 (중)
- 倫 鋤庚切 音與根同 (중)
- 磷 力耕切 音與梭同 (릉)
- 拊 居會切 角淸音 (궁)
- 登 都騰切 微淸音 (등)
- 騰 徒登切 微濁音 (등)
- 能 奴登切 微次濁音 (능)
- 崩 悲朋切 宮淸音 (붕)
- 朋 蒲登切 宮濁音 (뵙)
- 瞢 彌登切 宮次濁音 (몽)
- 增 騰騰切 商淸音 (중)
- 僧 思澄切 商次淸音 (승)
- 層 徂稜切 商濁音 (중)
- 恒 胡澄切 羽濁次音 (궁)

經 : 庚(경) 耕(경) 坑(경) 經(경) 輕(경) 亨(경) 經(경) 馨(경) 興(경)

(※ 以下에서는 字類代表字와 四聲通解의 表音단 고임)

行：行(행) 莖(형) 形(형)

兄：兄(형)

弘：弘(형)

以上の 例字들은 모두 1·2의 (4)의 경우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蒙古韻略音과 今古韻會舉要音이 同一한 것들인데, 위의 資料의 ()속에 든 表音은 蒙韻音으로서 이들은 그대로 韻會舉要의 譌譯音이 된다.

그러므로 字母韻「拒·經·行·兄·弘」의 韻部母音은 各各「一·키·키·π·π」로 推定된다.

3) 陽韻

岡：防(방)

江：(江) 仰(양)

黃：恍(황)

字母韻「岡·江·黃」의 韻部母音은 各各「卜·ㅏ·ㅏ」로 表音되었다.

莊·光·況：四聲通解에 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韻會舉要에서 字類代表字를 찾아 보면, 各各「莊創霜牀」「梅窓憲雙撞涼瀧光匡狂王汪荒」「況」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역시 앞의 1·2의 (4)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四聲通解에서 이들 字類의 蒙音을 찾아 보면, 그 韻部母音이 各各「卜·ㅏ·ㅏ」로 되어 있어, 字母韻「莊·光·況」의 韻部母音 역시「卜·ㅏ·ㅏ」가 됨을 알 수 있다.

4) 支韻

羈：羈(기) 示(지) 實(적) 積(지) 織(지) 疝(피)

賅：赅(즈) 醜(스) 滓(즈) 漬(즈) 釁(즈) 寺(쓰) 史(스) 士(즈) 徙(스) 麗(스)

媿：劑(귀) 悲(뷔) 彼(뷔) 秘(뷔) 披(뷔) 誼(뷔) 圯(뷔) 否(뷔) 被(뷔) 麋(뷔) 靡(귀) 蕤(뷔) 篳(뷔) 弼(뷔) 密(뷔)

惟：唯(위) 恚(위)

字母韻「羈·賅·媿·惟」의 韻部母音은 各各「ㅣ·一·기·키」로 表音되었다.

雞·規·麾：四聲通解에 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韻會舉要에서 이들 字母韻의 字類代表字를 찾으면 各各「祗耆雞雞詰兮屎」「規圓葵墜隼圭陰隄攜」

「魔韻」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역시 앞의 1·2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蒙韻音과 韻會舉要音이 同一한 例이다. 四聲通解에 依하면 이들 字類의 蒙韻韻部母音이 各各 「ㄷ·ㅌ·ㅍ」로 表音되었으므로 字母韻 「雞·規·魔」의 韻部母音은 「ㄷ·ㅌ·ㅍ」로 推定된다.

5) 魚韻

孤(구) 佈(부) 誦(부) 僕(부) 馥(부) 鋏(주) 目(무) 猝(주)
 居(구) 肅(구) 孰(숙) 贖(숙) 淑(숙) 叙(숙) 淑(숙) 遠(원) 肉(유) 魴(양)
 菹(유) 沮(주) 柱(주) 宇(유) 貯(유) 杼(주) 成(성) 迺(유)

字母韻 「孤·居」의 韻部母音은 各各 「ㄱ·ㅋ」로 表音되었다.

6) 佳韻

該(개) 載(재) 隘(애) 涯(애) 具(배) 沛(배) 倍(배) 茄(배) 昧(배)
 乖(괴) 賁(외) 霰(쇄)

字母韻 「該·乖」의 韻部母音은 各各 「개·배」로 表音되었다.

怪·佳·克·黑：四聲通解에 資料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字類代表字는 「帥」「佳皆諧諧溪」「克德忒特則塞賊頰測色廉勒」「黑劬」등인데, 이들 역시 1·2의 (4)에 해당하는 것으로 蒙音 韻部母音이 「개·배·기·기」로 나타나므로, 字母韻 「怪·佳·克·黑」의 韻部母音은 各各 「개·배·기·기」로 推定된다.

7) 眞韻

巾(진) 驢(진)
 昆(분) 鎔(분) 顛(훈)
 鈞(준) 尹(운) 脣(준) 脣(준)
 筠(분)

字母韻 「巾·昆·鈞·筠」의 韻部母音은 各各 「ㄷ·ㅌ·ㅍ·ㅍ」로 表音되었다.

根·欣：字類代表字는 「臻莘榛根根根恩」「磻欣」등인데, 이들의 蒙音 韻部母音은 「ㄷ·ㅌ」로 나타나므로 字母韻 「根·欣」의 韻部母音은 各各 「ㄷ·ㅌ」로 推定된다.

8) 寒韻

干(산) 飯(산) 院(산) 棧(산) 產(산)
 官(관)

關：饌(眷)

字母韻「干·官·關」의 韻部母音은 各各「ㄱ·과·과」로 表音되었다.

間：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資類代表字를 古今韻會舉要에서 찾으면 「間姦溷駢關間」등인데, 이의 蒙音韻部母音은「ㄱ」로 나타나므로 字母韻「間」의 韻部母音은「ㄱ」로 推定된다.

9) 先 韻

韃：蹶(뻬) 單(뻬) 妍(연) 彥(연)

涓：涓(뻬) 湍(뻬) 涓(뻬) 涓(뻬) 縣(뻬)

爲：擘(뻬)

字母韻「韃·涓·爲」의 韻部母音은「ㄱ·뻬·뻬」로 表音되었다.

賢·堅：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들 字母韻에 屬한 字類를 四聲通解의 蒙音에서 찾으면 그 韻部母音이 各各「ㄱ·ㄱ」로 되었으므로, 字母韻「賢·堅」의 韻部母音은 各各「ㄱ·ㄱ」로 推定된다.

10) 蕭 韻

驕：鴉(형)

驍：鳥(형) 蕭(형) 鼎(형)

字母韻「驕·驍」의 韻部母音은 各各「ㄱ·ㄱ」로 表音되었다.

高·郭·交·爨：이들 字母韻의 蒙音韻部母音은 各各「ㄱ·과·과·끼」로 나타나므로 字母韻「高·郭·交·爨」의 韻部母音 역시「ㄱ·과·과·끼」로 推定된다.

11) 尤 韻

鳩：尤(일) (囚(성) 雛(성) 雛(성) 有(일) 宥(일))

哀：穉(불)

字母韻「鳩·哀」는 韻部母音이 各各「ㅣ·ㄱ」로 表音되었다.

鈎·樛·浮：四聲通解에 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古今韻會舉要에서 이들 字母韻에 屬한 字類代表字를 찾으면 各各「鈎樛𧈧𧈧𧈧頭詭詭沖緝鄒愁謳婁」「樛虬休」「懷謀鴉浮」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1·2의 (4)에 該當하는 것으로 四聲通解의 蒙音에서 그 韻部母音이 各各「一·키·거」로 表音되어 있어, 韻會舉要的 字母韻「鈎·樛·浮」의 韻部母音은 蒙音과 同一한「一·키·거」로 推定된다.

12) 覃 韻

甘：𦉳(감) 𦉳(잠) 暫(잠) 𦉳(함)

筭：筭(삽) 臆(섭) 儼(협)

字母韻「甘·筭」의 韻部母音은 各各「ㅓ·ㄷ」로 表音되었다.

兼·欸·嫌·緘：四聲通解에 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韻會學要에서 字類를 찾으려면 各各「兼謙慝」「欸」「嫌」「緘監咸銜」등과 같은데, 다시 이들 字類代表字의 蒙韻謙譯音을 四聲通解에서 찾으려면 그 韻部母音이 各各「ㄷ·ㄷ·ㄷ·ㅓ」로 表音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字類는 모두 다 앞의 1·2의 (4), 즉 蒙韻音과 韻會學要音이 同一한 경우에 該當하므로 字母韻「兼·欸·嫌·緘」의 韻部母音은 各各「ㄷ·ㄷ·ㄷ·ㅓ」로 推定된다.

13) 侵 韻

金：噤(짐) 稔(짐)

字母韻「金」의 韻部母音은 「ㅣ」로 表音되었다.

欸·簪：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古今韻會學要에서 이들 字母韻에 屬한 字類代表字를 찾으려면 各各「欸」「簪岑森岑」등이 있는데, 이들의 四聲通解의 蒙古韻略音에서 그 韻部母音이 「ㅣ·一」로 表音되고 있어 字母韻「欸·簪」의 韻部母音은 各各「ㅣ·一」로 推定된다.

14) 歌 韻

歌：噯(저) 噯(저) 欲(허)

戈：朶(韻母거) 妥(韻母거) 情(韻母거) 倭(韻母거) 懦(韻母거) 剗(韻母거) 控(취) 騾(韻母거) 羸(韻母거) 摠(韻母거) 麼(韻母거) 脛(취)

字母韻「歌·戈」의 韻部母音은 各各「ㄱ·거」로 表音되었다.

15) 麻 韻

嗟：譟(셔) 贅(허)

迦：涉(셔) 她(셔) 藉(셔) 圉(셔) 伽(꺼) 迦(가)

瓜：𦉳(과) 瓜(과)

嘉：𦉳(카)

牙：吒(자)

玦：藟(취)

字母韻「嗟·迦·瓜·嘉·牙·玦」의 韻部母音은 各各「ㄷ·ㄷ·과·ㅓ·ㅓ·ㅓ」로 表音되었다.

癩：四聲通解에 資料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古今韻會學要에서 字類代表字를 찾으려면 「癩韡」등이 있는데 이들의 四聲通解에서의 蒙韻表音은 그 韻部母音

이 「ㅁ」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字母韻「癩」의 韻部母音은 「ㅁ」로 推定된다. 以上の 資料整理와 再構에 依해 古今韻會舉要의 韻部母音에 對한 崔世珍의 臚譯音을 推定해 보았다.

그럼 다음에서는 字母韻과 等韻과의 關係를 밝힌 趙蔭棠氏의 韻圖에 다¹⁴⁾切韻指掌圖의 「二十圖總目」의 開合을 加來하여, 推定된 韻部母音의 等韻과 開合에 따른 區別反映樣相을 表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

韻 目	1. 東		2. 庚		3. 陽		4. 支	
開 合	獨	開	合	開	合	開	合	
字母韻	公弓	京拒經行	雄兄弘	罔莊	江光黃	霸贊雜	爲覓麾推	
等韻								
1	公(ㄱ)	拒(一)		罔(ㄱ)	光(ㄱ)黃(ㄱ)	贊(一)		
2		行(ㅁ)	弘(ㅁ)	莊(ㅁ)	江(ㅁ)			
3	弓(ㅁ)	京(ㅁ)	雄(ㅁ)兄(ㅁ)				霸(ㅁ) 爲(ㅁ) 麾(ㅁ)	
4		經(ㅁ)					雜(ㅁ) 覓(ㅁ) 推(ㅁ)	
韻 目	5. 魚		6. 佳		7. 眞		8. 寒	
開 合	獨	開	合	開	合	開	合	
字母韻	孤居	該	乖 佳	巾根欣	昆鈞均	干 間	官 關	
等韻								
1	孤(ㄱ)	該(ㅁ)		根(一)	昆(ㄱ)	干(ㅁ) 間(ㅁ)	官(ㅁ) 關(ㅁ)	
2			佳(ㅁ) 乖(ㅁ)					
3	居(ㅁ)			巾(ㅁ) 欣(ㅁ)	均(ㅁ)			
4					鈞(ㅁ)			
韻 目	9. 先		10. 蕭		11. 尤		12. 覃	
開 合	開	合	獨	獨	獨	獨	獨	
字母韻	韃賢堅	涓 夤	高驕曉交	鴉哀鈞膠浮	甘箝兼欸嫌緘			
等韻								
1			高(ㅁ)	哀(ㅁ) 鈞(一)	甘(ㅁ)			
2			交(ㅁ)		緘(ㅁ)			
3	韃(ㅁ)	夤(ㅁ)	驕(ㅁ)	鴉(ㅁ) 浮(ㅁ)	箝(ㅁ) 欸(ㅁ)			
4	賢(ㅁ) 堅(ㅁ)	涓(ㅁ)	曉(ㅁ)	膠(ㅁ)	兼(ㅁ) 嫌(ㅁ)			

14) 趙蔭棠：前掲書 p. 114.

韻目	13. 侵	14. 歌		15. 麻	
開合	獨	開	合	開	合
字母韻 等韻	金 欲 簪	歌	戈	嗚迦嘉牙	瓜 癩
1		歌(ㄱ)	戈(ㄱ)		
2	簪(一)			牙(卜)嘉(卜)	瓜(ㄱ)
3	金(1)欲(1)			迦(ㄱ)	癩(ㅁ)
4				嗚(ㄱ)	

<表 7>

3.2.2. 韻尾音의 體系

四聲通解에 나타난 資料를 整理하면 韻尾音의 體系는 다음과 같이 된다.

韻尾	陰 類	陽 類		入 聲
韻目	魚歌麻支佳	蕭 尤	東 庚 陽	眞 寒 先 覃 侵 支魚佳蕭歌麻
推定音價 ¹⁵⁾	∅	∅	ŋ	n m ?
翻譯音	∅	ㅁ	ㅇ	ㄴ ㅁ ∅

<表 8>

위의 表에 依하면 推定音價와 翻譯音間에는 差異가 나타나고 있는데, 崔世珍의 音韻觀念으로는, 蕭韻과 尤韻의 韻尾音이 中古漢音에서는 /u/를 지니고 있었으므로¹⁶⁾ 韻會學要音에서도 그 殘滓가 남은 것으로 생각하여 /w/音價를 지닌 /ㅁ/를 表記한 것으로 생각되며, 入聲韻尾에서는, 四聲通解의 俗音에서, 「ㄱ」韻尾를 表記한 것이 나타나는데¹⁷⁾ 比해 韻會音表記에서는 「ㄱ」韻尾가 一切 나타나지 않는 點으로 보아, 韻會學要의 入聲韻尾는 認知 不可能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된다.

3.3. 反切과 翻譯音

앞에서 살펴 본 바에 依하면, 崔世珍의 韻會學要 翻譯音은, 聲母의 경우는 字母에다 音聲의 特徵, 즉 五音を 加味하여 翻譯하였고, 韻母의 경우는 字母韻에 따라 翻譯하였음을 알았다. 그런데 學界의 一般的인 見解는 四聲

15) 俞昌均: 東國正韻式漢字音의 基層에 대한 試論 p.136(震檀學報 第31號)

16) 拙稿: 新字典의 漢字音研究 p.134(嶺南語文學 第2輯)

17) 姜信沆: 前掲書 p.157.

通解의 韻會音이 反切의 體系에 根據한 翻譯音인 듯이 誤認하고 있는 듯하여 여기서는 韻會舉要의 反切과 翻譯音 間的 關係를 간단히 살펴 보기 위해 資料整理에 나타난 反切字가 同一한 例를 몇 개 들어본다.

醜	山宜切 (스)	筵籠篩帥獅獅婁
羈	居宜切 (기)	羈奇畸饑飢飢姬其
目	莫六切 (무)	首睦穆牧毋繻
馥	房六切 (부)	
肅	息六切 (슈)	蘇濶鵠鵠
孰	神六切 (슈)	熟塾燭蜀燭燭鵠鵠
肉	而六切 (슈)	辱辱辱辱辱辱辱辱
琚	神六切 (추)	
俣	昌六切 (추)	

위의 例에서 볼 때, 同一한 反切下字「宜」가 「一」와 「丨」의 둘로 反譯되었으며, 또한 同一한 反切下字「六」이 「丁」와 「π」의 둘로 反譯된 事實을 볼 때, 四聲通解의 韻會音은 反切字와는 無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結

以上에서 考察한 바에 依하면 四聲通解 所載 韻會音은 標題音인 四聲通解音과의 對比라기보다는 오히려 蒙韻音과의 對比를 通하여 그 差異點을 잘 밝혀 놓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 表音의 特色은,

① 聲母의 경우는 字母의 體系에 따라 翻譯된 音으로서 古今韻會舉要의 三十六字母를 三十一字母로 統合하였으며,

② 韻母의 경우는 字母韻의 體系에 따라 翻譯된 音으로서, 古今韻會舉要의 平聲 67字母韻을 54字母韻으로, 上聲 61韻을 52韻으로, 去聲 61韻을 52韻으로, 入聲 29韻을 26韻으로 統合하여, 字母韻 總計 218韻을 183韻으로 翻譯하고 있다.